

잡아함 117. 단유루경

날짜: 10월 2nd,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46>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구라산에 계시었다. 때에 라다라는 시자 비구가 있었다. 그 때에 집을 나온 많은 외도들은 라다에게 가서 서로 인사한 뒤에 한 쪽에 물러앉아 라다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까닭으로 집을 나와서 사문 고오타마 밑에서 범행을 닦는가.”

라다는 대답하였다.

“물질에는 번뇌와 장애·답답함·근심·슬픔이 있다. 만일 그것이 없어진다면 욕심을 떠나 마음이 지극히 고요해질 것이다.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는 번뇌가 있고, 장애·답답함·근심·슬픔이 있다. 만일 그것이 없어진다면 욕심을 떠나 마음은 지극히 고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집을 나와 세존 밑에서 범행을 닦는 것이다.”

때에 많은 외도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꾸짖고 떠나갔다.

그 때에 라다는 해질녘에 선정에서 깨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 쪽에 물러앉아 위의 일을 자세히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 말이 과연 세존을 비방하지나 않았나이까. 다른 사람이 와서 힐난하고 꾸짖을 때에 지지나 않겠나이까. 말답게 말하지 않고 법답게 말하지 않았으며 법과 법을 따르는 말이 아니지나 않나이까.”

부처님께서 라다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진실을 말하였다. 여래를 비방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하면, 물질에는 번뇌가 있고 장애·답답함·근심·슬픔이 있다. 만일 그것이 없어진다면 욕심을 떠나 마음은 지극히 고요해질 것이다.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는 번뇌와 장애·답답함·근심·슬픔이 있다. 만일 그것이 없어진다면 욕심을 떠나 마음은 지극히 고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집을 나와 여래 밑에서 범행을 닦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해 마치시자 라다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
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